

베트남, 건강보조식품 시장동향

2024년 1월 30일, 하노이지사

□ 키워드 :

○ 베트남 건강보조식품(Dietary Supplements) 시장현황

- 유로모니터(Euromonitor)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3.5%증가한 1,228.5백만불이며,
- 식물성 건강보조식품(Herbal/Traditional Dietary Supplements)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, 식물성, 비식물성 원료를 혼합한 혼합 건강보조식품의 성장률이 전년대비 14.0% 증가한 445.8백만 불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임.
- 건강보조식품 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, 소화계통 보조식품이 16.9%로 가장 많았으며, 다음으로 종합건강 14.4%, 심장 건강 14.2%순임.

<베트남 건강 보조 식품 시장규모>

(단위 : 백만 불, %)

구분	'20	'21(A)	'22(B)	전년대비 증감률(B/A)
○ 건강보조식품 (Dietary Supplements)	938.3	1,082.7	1,228.5	13.5
- 식물성 건강보조식품 (Herbal/Traditional Dietary Supplements)	450.7	511.8	578.0	12.9
- 비 식물성 건강보조식품 (Non-Herbal/Traditional Dietary Supplements)	161.8	179.9	204.7	13.8
- 혼합 건강보조식품 (Combination Dietary Supplements)	325.8	391.0	445.8	14.0

* 전체 합계는 식물성, 비식물성, 혼합을 더한 통계

* 자료원 : 유로모니터(Euromonitor), Dietary Supplements in Vietnam

○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수입 현황

- '22년 베트남의 건강보조식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20.95% 증가한 1,725,8백만 불로서, 전체 수입액의 18.7%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(323.2백만 불)가 1위이며, 중국(131.9백만 불), 유럽(117.8백만 불) 순임.
- 한국은 전년 대비 32.49% 증가한 95.2백 만불로 5위이며, 전체 수입액의 약 5.5%의 비중을 차지함.

<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수입 실적>

(단위 : 백만 불, %)




구분	'20	'21(A)	'22(B)	전년대비 증감률(B/ A)	비중
총계	1,172.6	1,426.8	1,725.8	20.95	100.0
싱가포르	225.5	259.6	323.2	24.51	18.7
중국	37.3	64.0	131.9	106.09	7.6
유럽	74.4	91.7	117.8	28.47	6.8
미국	90.6	99.6	106.7	7.16	6.2
한국	51.8	71.8	95.2	32.49	5.5

* 자료원 : GTA / HS Code : 210690(기타조제 식료품)

○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소비 현황

- 베트남 건강보조식품 시장 1, 2위를 다투고 있는 Herbalife와 Traphaco의 상품군을 보면, 식물성, 비식물성 원료를 혼합한 건강식품이 주를 이룬다는 공통점이 있음. 그러나 Traphaco의 제품군을 보면 뇌 혈액 순환 촉진제, 간 해독, 위장, 눈 치료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품들이 많으며, 때문에 제품들이 알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. Herbalife 상품의 경우 식사대용, 영양소, 단백질 보충 등 간접적이며,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보충제 역할을 하는 제품군이 많았다. 물에 타먹는 가루 형태로 된 제품이 많음.
- 우리나라 제품의 경우 인삼 엑기스 추출물과 비타민, 미네랄 등을 첨가한 종합영양제로 인기가 있는 홈타민과 정관장 제품이 현지 식물성 건강보조식품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음.

<베트남 대표 건강보조식품>

베트남산	미국산	한국산
		
보가닉(Traphaco) 120,000VND/50캡슐 (약 6,000원)	포물라 웨이크믹스(Herbalife) 600,000VND/550g (약 30,000원)	홍타민 인삼(Korea United Pharmaceutical) 130,000VND/60캡슐 (약 6,500원)

<베트남 건강 보조 식품 시장점유율>

구분	'20	'21	'22	'23(예상)
1 Herbalife Nutrition	15.4	18.2	17.5	16.4
2 Traphaco	7.3	7.7	7.8	7.7
3 Amway	5.1	5.6	5.7	5.8
... Korea United Pharmaceutical	2.0	1.7	1.8	1.9
... KT&G Corp	3.0	1.3	1.3	1.4

* 자료원 : 유로모니터(Euromonitor)

○ 시사점

- 베트남은 낮은 수준의 현지 의료서비스로 인해 건강보조제 등 건강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, 건강식품전문점과 같은 유통채널이 발달해 있음
- 홍삼, 영지버섯, 동충하초, 침향 등은 대표적으로 인기 많은 식물성 건강보조식품이며 특히 한국 홍삼에 대해 현지 인지도 및 선호도가 높음
- 최근에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콜라겐, 멀티비타민, 유산균 등 다양한 혼합 건강보조식품들이 인기가 급상승하여, 현지 약국체인(Long Chau, Phamacity 등), H&B체인(watsons, Guardian 등)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음
-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들은 어린이, 여성, 직장인 등 명확한 타겟팅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강보조식품들을 베트남에 시험 수출 해봄

로써 현지 수요 확인하고, 시장 진출을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함.

○ 출처

- Euromonitor, Dietary Supplements in Vietnam
- Căn bệnh ung thư gây tử vong nhiều nhất tại Việt Nam, 77% số ca xảy ra ở nam giới, 『베트남 보건부』, 2023.08.28

○ 문의처

- aT 하노이지사 박태영 +84 24-6282-2987